

류길재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이뤄질 것”

〈통일부장관〉

국회 외통위 의원들 무산·연기 가능성 지적에 “핵문제 포괄 논의…남북 사전교감·접촉 없었다”

오늘 판문점서 2차 고위급 접촉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3일 오후 20~25일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대해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산가족상봉이 무산이나 연기될 가능성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전남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진행에는 동의하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기간에는 상봉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의 최종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저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주장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상봉은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겹치는 24~25일에는 상봉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장관은 “북측에서 ‘한미군사훈련이 이산상봉 행사와 이틀 겹친다. (훈련을) 이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류 장관은 북측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연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이 청와대를 지목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서 “북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 수뇌부 간에 의중을 잘 아는(인사들이 만나서)…”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청와대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고위급 접촉 수석대표로 나선 것을 두고 “통일부의 위상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남북관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 대화

를 하는 게 필요했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고위급 접촉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이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정상회담, 5·24 대북 제재조치, 금강산관광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큰 틀에서 서로 의중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급접촉은 전반적으로 분위

가 좋았다”면서 “여러 큰 틀에서 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고위급접촉을 앞두고 제3국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다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는 “사전 교감이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이희호 여사, 전 日총리에 도자기 선물

(敬天愛人) 관인후덕(寬仁厚德)이 담긴 도자기를 선물받고 있다.

무리아미 도미미치 전 일본 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친필 ‘경천애인’

연남뉴스

김민중·이용재·김민곤 의원 ‘우수 의정 대상’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광주시의회 김민중(민·광산 4)의원과 전남도의회 이용재(민·광양 1)·김민곤(무·여수 5) 의원이 13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첫 시행한 ‘우수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민중 의원



이용재 의원



김민곤 의원

김민중 의원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재 의원은 건설 소방 관련 전문가로써 관련 삼임위 현장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에 주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전남도 국제 여객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는 등 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또 김민곤 의원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보이콧’ 하루만 철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처리

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보이콧’ 해온 교육의원들이 13일 하루 동안 삼임위에 참여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 등 교육의원 4명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와 삼임위원회에 불참해 왔으나 긴급현안 처리를 위해 13일 하루만 삼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삼임위에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교총과 전교조 등 범 교육

계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1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6월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급한 교육현안 처리와 최근 특수교사 신규임용시험 장애인 수험생 불합격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하루만 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쟁과 함께 시급한 교육현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보이콧 사태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외한 방과 후 공약제단 조례 등 일반 안전제라는 다음 회기로 넘겨질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바마, 4월 한국 방문

아시아 4개국 순방때...박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4월22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당초 일본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3개국 순방을 확정된 상태에서 막판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과 일본을 1박2일씩 조개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당초 2박3일간의 국민방문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세부일정을 놓고 백악관과 관련국들 사이에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이번 순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한·일이 팽팽한 ‘과거사 외교전’을 펴는 현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남뉴스

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의 목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경제, 안보적 관여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방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54년의 미·일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조치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 역대 최대 경제현안인 환태평양경제자유무역협정(TPP) 추진과 역대 외교교 도전과제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대선개입 의혹 규명

특별검사법 도입 촉구 ‘국정원 시국회의’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개입 의혹 중 개입 행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국정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의 활동 내용 등 많은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했다”며 “의혹이 남아있는 한 특검 수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남뉴스

전남도, 고문 변호사 선정 방식 ‘투명하게’

관련 조례 새로 제정키로

전남도는 13일 “법률자문, 소송수행 업무 등을 맡는 고문 변호사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선정, 역할, 해촉, 청렴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고문변호사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조례가 선정 절차나 정보공개 내용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폐기하기로 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고문 변호사 선정은 5명 이내

로 공모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위촉을 제한한다. 특정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독식하는 것도 제한되며 임기는 기존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문변호사 전문성이나 소송수행 현황도 공개된다. 행정이나 재정 등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건 등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현재 5명이 활동중이며 4명은 광주, 1명은 외지 변호사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 / 216.87㎡ / 582.45㎡
5층	아스터리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公 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검색엔진에 등재되었습니다

단비플라워

죽자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